

이스마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 칼 바르트의 선택 교리를 통해 본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김진혁*

I. 들어가는 말

II. 바르트와 이슬람

III.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이슬람

IV. 나가는 말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직신학 부교수

■ 한글초록

20세기의 대표적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는 계시와 종교를 대조하면서 종교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종교 개념은 그리스도교 배타주의의 이론적 근거로 자주 사용되었다. 본 논문은 바르트 신학에 대한 이러한 단순화된 적용 대신, 그의 사상의 핵심인 선택의 교리를 통해 바르트의 이슬람에 대한 견해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심으로 온 세상과 화해하고자 하였고, 선택된 공동체는 이 같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 바르트가 이슬람의 유일신관을 비판한 이유는 추상적인 초월자 개념으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자기 결정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의 관점에서 바르트의 종교 비판에 접근하면, 이전에는 그의 신학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 인내라는 주제가 드러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바르트의 주장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지만, 이슬람에서는 예언자이자 무함마드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차지하는 고유한 위치를 새롭게 보게 할 신학적 공간을 마련해 준다.

주제어: 칼 바르트, 이슬람, 종교, 계시, 하나님의 선택

I. 들어가는 말

스위스 출신의 개혁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개신교 신학자로 손꼽히는 만큼,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시점에도 그의 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르트는 유별난 호기심과 식지 않는 열정으로 엄청난 양의 글을 썼고, 그리스도교 교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치, 철학, 예술, 문화, 지성사 등도 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라만상이 존재하고 그분 안에 있다는 신약성서의 가르침을 급진화하면서, 모든 실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방법론은 인간중심적 세계관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으려던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하는데 신학사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타 분야 학자들이 각자의 방법론과 언어로 다루는 전문화된 주제들마저 과감하게 그리스도론적으로 재해석했고, 이러한 그의 방법을 놓고 지지 혹은 저항이 뒤따랐다. 바르트의 논쟁적 성향에 특유의 난해한 논리와 과장된 수사학이 더해져 그의 의도는 왜곡되거나 단순화되기 일쑤였고, 독자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게 대중화된 그의 이미지를 수용하고 소비하였다. 바르트 신학을 어떤 이는 방패 삼아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도, 다른 이는 무기 삼아 타인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바르트가 다뤘던 여러 주제 중 지금껏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그의 종교 개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자기 경건으로서 ‘종교’와 대조함으로써

써, ‘종교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급진적 입장은 종교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배타주의(exclusivism)의 대표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¹ 그러다 보니 소위 ‘바르트의 배타주의’는 이후 학자들에게 그리스도교 외의 모든 종교를 거짓 종교로 평가절하하는 이론적 근거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했다. 물론 종교 비판을 감행하며 세계종교에 대해 자기식으로 논평하기 주저하지 않던 바르트의 태도도 자신에게 배타주의라는 분류표가 붙게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여러 종교 중에서도 바르트는 유독 이슬람에 대해 단순화된 지식을 가졌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유명한 종교 비판과 연동되면서 그가 이슬람 교리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신학자처럼 낙인찍히게 되었다. 물론 바르트가 세계종교에 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했고,² 그가 유럽 사회에서 그리스도교가 여전히 주도적이었던 20세기 초 중반에 활동했다는 시대적 한계를 참작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그가 1930년대에서 부상하는 히틀러와 나치 세력을 비판하고자 ‘새로운 무함마드’와 ‘새로운 이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

1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Paul Knitter, *No Other Name?: A Critical Survey of Christian Attitudes toward the World Religion*, 변선환 옮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46-149.

2 젊은 시절 바르트는 이슬람에 대한 지식과 종교를 해석하는 방식을 콘라드 폰 오렐리의 1911년작 『종교의 일반사』에서 배운 것으로 추정된다. Conrad von Orell, *Allgemeine Religionsgeschichte* (Bonn: A. Marcus & E. Weber's Verlag, 1911). 이후 바르트는 루돌프 오토 등의 작품을 통해 종교 개념과 다른 종교에 대한 지식을 넓혀간 것으로 보이나, 이슬람에 관한 지식에서는 별다른 확장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을 보라. Glenn Chestnutt, “Barth and Islam,” in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Karl Barth*, vol. 2, ed. George Hunsinger and Keith L. Johnson (Chichester: Wiley Blackwell, 2020), 893-894; Francis Clooney, “Foreword,” in *Karl Barth and Comparative Theology*, ed. Martha L. Moore-Keish and Christian T. Collins Winn (New York: Fordham University, 2019), viii.

면,³ 16세기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자신의 신학적 아젠다를 관철하고자 터키인을 악마라고 부르던 것마저 연상된다.⁴

하지만 흥미롭게도 오늘날 종교신학이나 선교신학에서 그리스도교 배타주의의 대표처럼 여겨지던 바르트의 사상을 ‘탈배타주의적’으로 재해석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바르트가 활동했던 20세기 초중반의 정치·종교·문화적 상황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감이 생긴 현시점에서야, 학자들도 바르트의 수사학적인 배타주의 언어 이면의 심층 논리와 역사적 배경에 관한 진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학계에서 거대한 담론이나 추상적 이론을 지양하고 특정 인물이나 텍스트에 관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흐름이 대두되면서, 종교 개념을 비판하고 계시의 구체성을 강조하던 바르트의 방법론에 대한 재조명도 일어나게 되었다.

바르트 신학에 대한 오늘날 학자들의 변화한 해석을 반영하며, 본 논문은 이슬람에 대한 바르트의 생각을 그의 주저 『교회교의학』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⁵ 특별히 이슬람에 관한 바르트의 관점을 그의 유명한 종교 비판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정론’ 혹은 ‘선택의

3 1930년대 바르트가 정치신학적으로 ‘이슬람’ 개념을 사용한 것에 관해 다음 논문을 보라. Chestnutt, “Barth and Islam,” 894–896. 특히 1930년대 시대적 격변기에 바르트는 서구 역사에 등장한 새로운 종교로서 정치체제의 예로 파시즘과 공산주의, 미국주의, ‘새로운 이슬람’ 등을 거론했다.

4 종교개혁자들의 이슬람 이해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변창욱, “종교개혁자들의 이슬람이해,”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0, no. 1 (2017): 99–132. 특히 108–115쪽의 루터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참고하라.

5 Kar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IV, ed. Thomas F. Torrance and Geoffrey W. Bromiley, trans. Geoffrey W. Bromiley et al., *Church Dogmatics* I–IV, (Edinburgh: T & T Clark, 1936–1977). 본 논문에서 『교회교의학』을 인용할 때 영역본을 사용하고, 각 주에서는 영역본을 약기법인 CD 뒤에 권/부, 쪽수를 차례로 표기한다.

교리'와 관련하여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먼저 본 논문의 논지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에, 지금껏 학자들이 바르트와 이슬람의 관계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II). 그리고는 바르트가 칼뱅주의 이중예정론과 달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했는지를 압축적으로 소개한다. 뒤이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교회교의학』에 산발적으로 나오는 이슬람에 대한 파편적 논평을 분석함으로써, 이슬람에 관한 바르트 신학의 '새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III). 끝으로, 바르트를 통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관계에 접근하는 것의 의미를 정리하며 논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IV).

II. 바르트와 이슬람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적 배경에서 활동해서인지 바르트는 유대교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다른 세계종교에 대해서는 그다지 폭넓게 알지 못했다.⁶ 유대교를 향한 그의 관심이 3~6세기에 걸쳐 그 모습을 구체화한 회당 중심의 랍비 유대교에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그는 반유대주의가 유럽을 휩쓸던

6 이 이스라엘을 교의학의 핵심 주제로 끌어온 바르트의 업적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하라. Katherine Sonderegger, *That Jesus Christ Was Born a Jew: Karl Barth's "Doctrine of Israel"*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2); Eberhard Busch, "Indissoluble Unity: Barth's Position on the Jews during the Hitler Era," in *For the Sake of the Word: Karl Barth and the Future of Ecclesial Theology*, ed. George Hunsinger (Grand Rapids, Mich. and Cambridge, U.K.: Wm. B. Eerdmans, 2004), 53-79.

당시 이스라엘과 교회의 통일성을 그리스도교 신학의 핵심에 가져다 놓는 급진적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아브라함 계통 유일신론인 이슬람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 스쳐 가는 정도로 언급만 했을 뿐이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성서와 꾸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지만,⁷ 이 역시 구체성 없이 툭 던진 듯한 말이라 여기서 바르트의 이슬람에 관한 입장을 끌어낼 수도 없다. 그런데 바르트가 꾸란이나 이슬람 신학자를 인용하거나 분석하면서 이슬람에 관한 자기 생각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기에, 오히려 그의 동시대 혹은 후대 학자들이 종교신학이나 선교신학에서 바르트의 이슬람관을 해석하는 여러 방식이 생겨났다. 바르트와 이슬람의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1. 그리스도교 배타주의

1938년에 독일어로 출판된 『교회교의학』 I/2에 등장한 바르트의 유명한 종교 비판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의 정치적 혼란기를 배경으로 한다. 바르트는 이러한 인류문명의 위기가 이전 세기 사람들의 의식을 휘어잡던 “하나님 없는 인간” 혹은 절대주의적 인간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바르트의 종교 비판은 1910년대 중반 1차 세계대전 이후 찾아온 유럽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혼란기에 집필된 저술에까지 거슬러 발견된다. 하지만 그의 종교 비판의 정점은 『교회교의학』 I/2의 §17 “종교의 지양으로서의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르렀

7 이 내용은 1968년 바르트가 헨드리쿠스 베르코프에게 보낸 편지에 나온다. Chestnutt, “Barth and Islam,” 901 참고.

다. 바르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계시’이고,⁸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신구약 성서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계시에 대한 ‘증언’이다.⁹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서라는 ‘구체적’ 지점이 아닌 다른 ‘일반적’ 출발점으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종교가 계시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인 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심지어 반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바르트는 인간의 자기 경건의 형태로서 종교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르트가 말한 ‘거짓 종교’에 그리스도교 이외의 모든 종교가 포함된다고 추정한다. 실제 바르트는 ‘거짓 종교’라는 제목 아래서 인간의 왜곡된 종교성을 분석하다 이슬람도 한 번 스치듯 언급하기도 한다.¹⁰ 하지만, 바르트가 종교를 비판한 의도를 가능한 정당하게 파악하려면 고려할 점이 몇 가지가 있다. 그중 세 가지를 선별하였다. 첫째, 『교회교의학』 I/2에서 바르트의 비판이 일차적으로 향한 것은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한 다양한 종교가 아니라, 당시 유럽 지성인 사이에 통용되던 추상적인 종교 개념이다. 19세기 서유럽 신학계에서는 계시가 아니라 인간 본

8 계시를 경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바르트의 입장은 경전 자체를 계시로 삼는 방법론과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무슬림이 꾸란을 계시로 삼기에, 꾸란은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의 대화 혹은 이슬람의 타종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바르트에게서는 성서의 내용은 언제나 그리스도론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기에, 경전 자체가 타종교에 대한 태도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 종교 간의 만남에 있어 경전, 특히 이슬람에서 꾸란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Ahyoung Kim, “Quranic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Faiths,”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 no. 1 (2008): 53-71; 조문상, “이슬람 선교를 위한 접근점,”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3, no. 1 (2010): 156-158.

9 Barth, *CD* I/2, 463.

10 *Ibid.*, 302.

성의 일부로서 종교를 먼저 인간학적 바탕 위에서 설정한 후, 그 위에서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하였다.¹¹ 따라서, 바르트의 종교 개념은 근대의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라는 더 큰 신학적 맥락 속에서 우선 이해해야 한다.

둘째, 바르트의 종교 비판이 19세기의 인간학적 종교 개념만이 아니라, 계시에서 출발하지 않은 여러 종교 현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여러 세계종교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하며 바르트를 배타주의자로 낙인찍는 것은 바르트의 본 의도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물론 바르트 본인이 자신의 종교 비판의 관점을 가지고 타종교에 대해서도 논평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바르트가 세계종교를 분석하는 것보다 심혈을 더 기울였던 것은, 그리스도교와 근대성의 왜곡된 결합에 대한 항거이자,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내재한 기만적 종교성에 대한 폭로였다. 에버하르트 부쉬가 잘 표현했듯, “바르트의 문장들은 타종교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비판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비판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비판의 대상이다.”¹²

셋째, 바르트의 종교 비판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된 현실 종교가 그리스도교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교는 참 종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그리스도교는 자기가 가지

11 Karl Barth, “Evangelische Theologie im 19. Jahrhundert,” trans. Thomas Wieser, “Evangelical Theology in the 19th Century,” in *The Humanity of Go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11–36; CD I/2, 284–291. 바르트의 신학은 포이어바흐와 프로이트 등으로 이어지는 ‘인간성의 투사’로서 종교 비판의 연속선 상에 있다. 하지만 그는 인간학적 기초가 아니라 계시로서만 종교의 본성이 폭로된다는 새로운 신학적 통찰을 더 했다.

12 Eberhard Busch, *Die grosse Leidenschaft*, 박성규 옮김, 『위대한 열정』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66.

고 있는 어떤 장점 때문이나 종교를 개혁하려는 노력 때문에 참종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¹³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기에,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계시를 선포하는 사명 속에서 역사적 종교인 그리스도교는 참종교가 된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교도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종교성의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지만, 그리스도교는 종교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거짓 종교를 참종교로 끌어 올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고유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신중한 바르트 비판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바르트 특유의 배타주의 문법이 탄생한다고 지적한다.¹⁴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르트의 종교 비판은 네덜란드 출신 선교학자이자 이슬람 선교사였던 헨드릭 크레머(Hendrik Kraemer)에 의해 새로운 맥락에서 즉각 재해석되었다. 1938년 인도 탐바람에서 열린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를 준비하며, 크레머는 “교회의 증언”이라는 주제로 그리스도교의 계시와 타종교의 신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기독교 선교와 타종교』이다.¹⁵ 거기서 크레머는 바르트의 종교 비판을 인용하며 타종교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태도를 정립하고, 이후 이슬람을 포함한 여러 종교의 사상적 틀과 종교 상황을 분석한다.¹⁶ 바르트와 동시대를 살았던 크레머가 바르트

13 Barth, *CDI*/2, 344.

14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Veli-Matti Kärkkäinen,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Religions: Biblical, Historical & Contemporary Perspectives*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3), 179–180.

15 Hendrik Kraemer, *The Christian Message in a Non-Christian World*, 최정만 옮김, 『기독교 선교와 타종교: 종교다원주의 신학에 대한 비교종교학적 비판』 (서울: CLC, 1993), 119–153.

16 특별히 『기독교 선교와 타종교』의 4장 “타종교에 대한 태도”에서 크레머는 바르트와 브루너의 신학을 소개한다. 하지만 선교대회를 준비하며 쓰인 책이어서인지 크레머가 인용 표시를 충실히 하지 않아, 그가 바르트의 어떤 책에서 직접 영향을 받았는지 정확

의 사상을 제대로 반영했는지(특히 『교회교의학』 1/2와 『기독교 선교와 타종교』는 같은 해에 출간되었다), 은퇴 이후에야 미국을 한 번 방문한 것 외에 유럽에만 머물렀던 바르트와 비교할 때 선교 현장의 삶과 언어와 문화에 익숙했던 크레머가 ‘덜’ 배타주의적인 태도를 가졌는지,¹⁷ 두 작품 이후 바르트와 크레머의 입장은 어떻게 변했는지 등의 주제는 후대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의 중이다. 하지만, 크레머의 책이 20세기 초반 이래 선교신학과 선교 현장에서 가지는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에 의해 소위 바르트식의 ‘배타주의’가 대중화된 것은 역사적으로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¹⁸

2. 종교 간의 대화

바르트와 크레머는 1880년대에 태어났고, 1930년대에 각자의 종교이론이 담긴 주저를 출간했으며, 1960년대에 세상을 떠났다. 바르트는 1886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세상을 떠났다.¹⁹ 그 후 반세

히는 말하기가 힘들다. 크레머가 이후 출간한 저서에 인용된 바르트의 작품과 그의 회고를 통해 볼 때, 그가 바르트의 『교회교의학』 1/2의 독일어판을 읽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Hendrik Kraemer, *Religion and the Christian Faith* (Cambridge: James Clarke Co., Ltd, 1956), 185-188 참고.

- 17 크레머와 바르트의 차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Kärkkäinen,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Religions*, 181-186; 안점식, “헨드릭 크레머(Hendrik Kraemer)의 종교신학과 선교신학에 대한 고찰,” 『신학정론』 23 (2005): 240-262.
- 18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종교신학을 전개하는 다니엘 스트레인지지는 크레머가 그리스도교와 타종교 사이의 불연속을 강조한 것은 환영하면서도, 오히려 바르트의 영향으로 크레머가 복음과 경원적인 그리스도교(혹은 교회) 사이의 긍정적 일치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하지 못한 것을 비판한다. Daniel Strange, *Their Rock Is Not Like Our Rock* (Grand Rapids: Zondervan, 2014), 39-40, n. 39.
- 19 크레머는 1888년에 탄생하여 1965년에 사망했다. 1938년에 출판된 『교회교의학』 1/2와 『기독교 선교와 타종교』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였지만, 어떤 점에서는 19세기 유럽 문명의 와해라는 공통된 배경에서 탄생한 20세기 신학의 고전이라 할 수 있다. 두 거장의 생존 당시 스위스와 독일, 네델란드의 그리스도교 상황에 관해서는 다음을

기 동안 세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사람들의 이주와 이민으로 큰 변화를 겪었고, 수백 년을 이어오던 유럽과 북미의 그리스도교 문명의 옛 모습은 와해 되었다. 그 결과 타문화권 선교뿐만이 아니라, 세속화된 사회 내의 종교적 다원성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듯, 바르트의 종교관에 대한 학자들 사이의 재조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났다. 여기서는 그중에서 특별히 바르트와 이슬람의 관계를 종교 간의 대화 혹은 비교신학이라는 맥락에서 연구한 대표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계시와 종교의 차이를 강조하던 바르트의 주장을 그리스도교와 타종교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곧바로 적용하는 대신, 일부 학자들은 바르트의 종교 비판의 원래 의도를 재구성한 후 다른 종교 전통과의 대화를 시도한다.²⁰ 예를 들면, 토비아스 스펜커(Tobias Specker SJ)는 바르트의 종교 비판이 근대 유럽의 세속화에 대한 응답이라는 더 큰 문맥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임을 고려할 때, 다원화된 후기 세속화 시대에 종교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 스펜커는 바르트의 계시 개념은 종교의 자기비판에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사이의 잘못된 경쟁 혹은 대결 구도를 상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종교를 비판하

참고하라. Kwok Pui-lan, Don H. Compier, and Joerg Rieger, eds., *Empire and the Christian Tradi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337-370.

20 대표적으로 다음을 참고하라. Garrett Green, "Challenging the Religious Studies Canon: Karl Barth's Theory of Religion," *Journal of Religion* 75 (1995): 473-486; Francis Clooney, *Hindu God, Christian God: How Reason Helps Break down the Boundaries between Relig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29-162; Tom Greggs, "Bringing Barth's Critique of Religion to the Inter-faith Table," *Journal of Religion* 88 (2008): 75-94; Sven Ensminger, *Karl Barth's Theology as a Resource for a Christian Theology of Religions* (Edinburgh: T & T Clark, 2016), 9-82.

던 바르트의 펜 끝이 실제로는 나치와 제국 교회의 결합을 향했던 만큼, 바르트적 관점이 오늘날 무슬림 극단주의나 개신교 근본주의가 보여주는 종교의 정치화에 대항하면서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한다.²¹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바르트의 논쟁적인 종교 개념이 아니라 그의 후기 신학을 통해 그리스도교와 타종교 사이의 대화 가능성을 탐구한다.²² 20세기 초반 바르트가 유럽 사회에 질게 내렸던 전체주의와 세계대전 등의 위협에 반대하며 종교나 문화 등의 개념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면, 20세기 중반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라는 주제를 재발견하며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결과 그의 신학도 포괄적인 그리스도 중심주의(an inclusive Christo-centrism)적 경향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²³ 일례로, 글렌 체스트넛(Glenn

21 Tobias Specker, "Karl Barth's Critique of 'Islam' as a Stimulus for Christian-Muslim Dialogue [Unpublished manuscript]," 3-8. 바르트의 종교이론을 아부 하미드 알-가잘리의 계시 개념과 비교한 다음 연구도 참고하라. Joshua Ralston, "Analogies across Faith: Barth and Ghazali on Speaking after Revelation," in *Karl Barth and Comparative Theology*, ed. Martha L. Moore-Keish and Christian T. Collins Winn (New York: Fordham University, 2019), 115-136.

22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J. Augustine Di Noia, "Religion and the Religion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Karl Barth*, ed. John Webst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43-257; Paul Louis Metzger, *The Word of Christ and the World of Culture: Sacred and Secular through the Theology of Karl Barth* (Grand Rapids: Eerdmans, 2003), 127; Paul S. Chung, "Karl Barth's Theology of Reconciliation in Dialogue with a Theology of Religions," *Missional Studies* 25 (2008): 211-228; Gerald McDermott, *Can Evangelicals Learn from World Religions*, 한화룡 옮김, 『기독교는 타종교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종교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양』 (서울: IVP, 2018), 147-149.

23 빛의 유비도 바르트 신학이 변화하며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종교 비판의 맥락에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치는 빛(Light)과 빛 이면의 그림자를 함께 언급한다. 반면 이후 화해론에서 바르트는 창조 세계의 빛들(Lights)도 강조한다. Barth, *CD* I/2, 388; *CD* IV/3, 157.

Chestnutt)은 세계대전 이후 바르트의 글에서 제안된 교회와 정치 개념을 활용하여,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교와 타종교의 대화의 지점을 모색한다.²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국가는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선’을 실현함으로써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면, 세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교인만을 위한 당파성을 넘어서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함으로써 정의로운 정치질서 성립에 기여한다.²⁵ 이러한 관점에서 체스트넛은 바르트의 신학에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다양한 문화와 신념 체계가 존중받고 서로 다른 종교 전통이 협력하는 공존의 장을 발견한다. 더 나아가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소수자 보호 등 현대 사회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놓고 바르트와 현대 이슬람 신학자 사이의 대화를 시도한다.

위에서 간략히 소개한 바르트의 재해석은 바르트를 배타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읽어내거나, 타종교에 대한 배타주의적 태도를 바르트를 통해 정당화하던 편향된 접근을 수정한다.²⁶ 특별히 바르트로부터 그리스도교 고유의 신앙고백은 타협하지 않으면서

24 Glenn Chestnutt, “The Reformation and Islam: Karl Barth in Conversation with Tariq Ramadan and Ali Gomaa,” *Journal of the Council on Religion* 1 (2020): 31–46.

25 Karl Barth, “Christengemeinde und Buergergemeinde,” unknown translator, “The Christian Community and the Civil Community,” in *Community, State and Church*, ed. Will Herberg (Garden City: Anchor Books, 1960), 171–173.

26 바르트에 대한 재해석 작업이 실제 그의 신학의 ‘배타주의적’ 문법을 약화하였는지에 관한 질문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바르트가 계시론과 삼위일체론에서 ‘계시와 자연’의 차이를 엄격히 유지하는 한 그의 신학은 결국에는 배타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다음 주장을 참고하라. Veli-Matti Kärkkäinen, *Trinity and Religious Pluralism: The Doctrine of the Trinity in Christian Theology of Relig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7), 25–27. 이와는 달리 바르트의 계시론과 삼위일체론은 배타주의적 문법을 상대화하는 ‘헌신을 유지한 다원주의적 인식론’ (committed pluralist epistemology)을 제시한다는 다음 주장도 참고하라. Trevor Hart, *Regarding Karl Barth: Toward a Reading of His Theology* (Eugene: Wipf & Stock, 1999), 100–116.

도 다른 종교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르트의 신학은 최근 학자들 사이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바르트 신학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관계를 놓고 벌어지는 또 다른 논쟁적 상황 속에 최근 거론되었다.

3. 공통의 신?

2015년 12월 10월 페이스북에 게시된 한 글이 미국의 정치와 종교와 교육계에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의 복음주의 계열 학교인 휘튼 컬리지(Wheaton College)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여성으로 최초로 종신 교수가 된 라리샤 호킨스(Larycia Hawkins)가 무슬림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신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인 자신은 무슬림과 연대의 표시로 학교에 히잡을 쓰고 일하겠다고 글을 올렸다.²⁷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휘튼 컬리지는 학교의 신앙고백과 어긋난다며 호킨스를 휴직 처리했고, 이후 몇 달간 호킨스의 주장과 학교 측 대응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학교 내외에서 가열되었다. 결국, 2016년 2월 8일에 호킨스는 휘튼을 떠나기로 학교 측과 합의를 했지만, 이 사건이 남긴 논란의 여파는 그 이후에 계속되었다.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함께 삼는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이 같은 신을 섬기는가’라는 질문은 이슬람의 등장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인 논쟁 주제이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며 이슬람 극단주의의 부상, 이슬람과 대화를 강조한 프란시스코 교황의

27 Manya Brachear Pashman, "Wheaton College Seeks to Fire Christian Professor over View of Islam (January 6, 2016)," *Chicago Tribune*, <https://www.chicagotribune.com/news/breaking/ct-wheaton-college-professor-fired-20160105-story.html> (accessed January 20, 2022).

행보, 종교신학자나 정치신학자 사이에서 벌어진 공통의 신에 관한 학문적 논의 등이 이 문제를 향한 학계와 대중의 관심을 더욱 달구었다.²⁸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호킨스 사건은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특정 종교의 신앙고백을 정체성 삼아 세워진 교육 기관 속에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냐는 복잡한 문제와 얽히며, 두 유일신 종교가 같은 신을 예배하는냐는 대중적 호기심을 더욱 고조하였다.

공통의 신 논쟁이 진행되는 중에 20세기 삼위일체 신학의 부흥을 일으킨 바르트가 언급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실제 일부 바르트 학자는 이 논쟁에 바르트적 관점을 가지고 반응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교 배타주의 문법을 피하면서도, 그리스도교인이 예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무슬림의 알라는 같지 않다는 의견을 내어놓았다.²⁹ 만약 두 종교의 신이 같다면, 삼위일체론은 1세기 이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신을 예배하며 발전시킨 신념 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극단화될 때 나오는 결론은, 하나의 신을 고백하는 방식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우연적 산물일 뿐이다. 반면, 바르트에 따르면 삼위일체론은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계시에 대한 가장 적합한 교회의 해석이다.³⁰ 삼위일체 ‘론’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신학적 작업을 통해 형성된 것은 사실일지라도, 그 교리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신에 대해 상상한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삼위일체론은 인간

28 대표적으로 2011년에 출간된 미로슬라프 볼프의 『알라』를 들 수 있다. Miroslav Volf, *Allah: A Christian Response*, 백지운 옮김, 『알라』 (서울: IVP, 2016).

29 미국의 대표적 바르트 학자 브루스 맥코맥의 강연을 보라. Bruce McCormack, "Karl Barth on the Relation of Islam to Christianity [unpublished lecture manuscript]."

30 Barth, *CD I/1*, 308. 여기에는 언어보다 실재가 선행한다는 바르트의 방법론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론은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라는 결론이 이어진다.

의 종교사에서 형성된 신 이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아버지요 아들이며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서의 증언을 역사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계속된 선포와 비판적 수정과 합의를 거치면서 형성한 것이다.

바르트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공통의 신을 가진다고 보기 힘들다. 바르트에게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통찰을 끌어낼 수 있더라도, 그의 신학은 역사주의 혹은 실천적 관점에서 두 종교 사이의 근원적 차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움직임에는 제동을 건다.³¹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가 오늘날 다종교 상황 속에서 현대인에게 던져주는 과제는 성서가 증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체성과 고유성을 상대화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배타주의적 문법 속에 함몰시키지 않는 지혜를 찾는 일이다.

이상에서 살펴봤듯, 바르트의 신학을 새로운 종교적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슬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재해석하는 여러 시도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루지 않은 근원적 문제가 있다. 바르트 본인은 이슬람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바르트가 이슬람에 대하여 한 말들이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을까?

31 Specker, "Karl Barth's Critique of 'Islam' as a Stimulus for Christian-Muslim Dialogue," 8-11도 참고하라.

Ⅲ.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이슬람

바르트의 방대한 저술 속에서 이슬람에 관한 논평이 아주 가끔 여기저기서 단편적으로 등장하기에, 이슬람에 대한 그의 통일된 관점을 즉자적으로 알아차리기 힘들다. 그렇다면 그의 사상의 심층구조 속에는 이슬람에 대하여 일관적인 태도를 재구성할 만한 신학적 자원이 있을까? 역사적 종교로서 이슬람의 교리나 실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바르트에게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는 이슬람에 대한 바르트의 견해를 그의 초기부터 후기 저술까지 살펴보는 통시적인 접근법 대신,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이슬람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하고,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의 관계를 정의하는지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슬람이 짧게라도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교회교의학』의 실제 본문을 분석할 예정이다.

바르트의 설교문과 논문, 강연문, 교의학 등 다양한 장르의 저술에 등장한 이슬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체스터넛에 따르면, 이슬람은 바르트의 『교회교의학』에서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등장한다.³² 첫째, 『교회교의학』 I /2의 종교 비판에서 바르트는 이슬람의 신론이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교회교의학』 II /1의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단일성을 언급하던 중 바르트는 이슬람의 추상적인 유일신론을 비판한다. 셋째, 『교회교의학』 III /3의 섭리론에서 랍비 유대교의 이방화된 형태(paganised form)로 이슬람이 거론된다. 이처럼 바르트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집필한 교의학 저술 속에 이슬람은 산발적으로 등장하기에,

32 Chestnutt, "The Reformation and Islam," 32-35.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자료로 그의 ‘이슬람 신학’을 체계화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바르트 신학의 핵심적 개념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교리적 주제의 맥락을 재해석하면, 피상적 독해로는 발견하기 힘든 이슬람에 관한 어느 정도 일관성 있으면서도 통찰력이 있는 견해를 발견할 수도 있다.³³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바르트의 선택의 교리는 1942년에 출간된 『교회교의학Ⅱ/2』에서 방대하게 전개된다. 바르트 전문가들에 따르면, 『교회교의학』Ⅱ/2는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바르트의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의 방법론적인 완성이자, 이후 그가 다른 교리들을 다룰 때도 중요한 신학적 전제가 된다.³⁴ 어떤 이는 구원으로 어떤 이는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선택하셨다는 칼뱅의 이중예정론을, 바르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이중예정론으로 변환한다. 바르트가 진단하기에 칼뱅의 예정론은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요 그 대상은 인간이라는 경직된 이분화 구조를 가진다. 그 결과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불안을 자아내는 공포의 소식이 되어 버린다. 반면, 바르트는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33 다음 연구도 선택의 교리를 종교 간 대화의 중요한 맥락으로 재해석한다. Sven Ensminger, *Karl Barth's Theology as a Resource for a Christian Theology of Religions*, 113-144.

34 이에 관한 탁월한 논의로 다음을 참고하라. Bruce McCormack, "Grace and Being: The Role of God's Gracious Election in Karl Barth's Theological Ontology," in *Cambridge Companion to Karl Barth*, ed. John Webs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가 볼 때 전통적인 이중예정론이 두려움의 교리로 둔갑한 근원적 이유는, 신약성서가 소개하는 영원부터 성부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칼케돈 그리스도론에서 공식화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vere deus, vere homo)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다는 데 있다.

바르트에 따르면, 예정론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요, 선택받은 인간도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한다.³⁵ 한편으로, 그리스도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추상적인 영원한 성자가 아니라 참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임을 의미한다. 즉, 영원부터 하나님은 홀로 자족하는 유일신 혹은 일자가 아니다.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인간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³⁶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받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이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을 뜻한다.³⁷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무한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조건 없이 예정하셨다.³⁸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받을 개인과 멸망

35 Barth, *CD II/2*, 103.

36 Ibid., 103; Karl Barth, “Die Menschlichkeit Gottes,” trans. John Newton Thomas, “The Humanity of God,” in *The Humanity of Go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46–50.

37 Barth, *CD II/2*, 116.

38 여기서 바르트는 그리스도론의 포용적 성격을 특별한 형식으로 보여준다. 많은 신학자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적 지평을 발견한다. 하지만 바르트는 거기다 ‘인류의 대표로서 그리스도’를 더하여 강조함으로써, 계시의 보편성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모든 인간의 연대를 함께 이야기하는 신학적 모델을 제시한다. 성육신의 보편성이 포용적 신학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신숙구, “이슬라모포비아: 요한복음에 나타난 포용의 신학,”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4, no. 2 (2021): 7–46.

할 개인의 선택이라는 칼뱅주의 예정론의 이중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은혜의 선택의 이중 구조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렇다면 바르트의 선택의 교리가 그리스도교와 타종교, 특별히 이슬람과 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 첫째, 전통적 이중예정론에서 구원받을 개인의 선택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에 우선한다. 달리 말하면, 참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과 분리된 거룩한 공동체이다. 반면, 바르트에 따르면 선택된 공동체의 존재는 선택된 개인에 우선한다. 창조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선택을 역사에서 현실화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부터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으로 개인들을 부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인식하게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류 사이의 화해를 증언하도록 개인들을 ‘공동체 밖’으로 파송하시기 위함이다.³⁹ 이러한 구도 속에서 무슬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인류에 속해 있지만, 역사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잠정적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또한 주의 깊게 볼 점은 바르트가 하나님과 계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사명을 교회가 대신한다는 대체주의(Supersessionism) 신학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교회와 교회 밖의 경계를 성과 속의 구도로 나누지 않고 교회의 본질 자체를 선교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⁴⁰

39 Barth, *CD II/2*, 261-264. 선택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됨 속의 연대를 맺고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를 함께 증언한다.

40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바르트에게로 거슬러 올라가 찾는 최근 연구로 다음을 보라. Kyle A. Roberts, “The Church as ‘Witness’: Karl Barth and the Missional Church.”

둘째,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오직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자 했던 칼뱅의 본 의도와 달리, 칼뱅주의 이중예정론은 종종 타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실제 만들곤 했다. 즉,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선택한 사람과 일상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전제는, 공동체 내 갈등이나 문제의 원인을 종교적 신념이 다르거나 신앙인답지 않게 사는 특정인을 향한 혐오나 폭력을 정당화해주곤 했다.⁴¹ 반면, 바르트는 선택받은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의 구분을 상대화하고, 인종·문화·성별 등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한 인류의 연대를 우선 강조한다. 그리고 교회 안과 밖의 구분 역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도록 요청한다.⁴² 이러한 신학적 제안은 오랫동안 그리스도교가 타문화나 타종교를 향해 가졌던 교리적·문화적 우월주의를 비판적으로 재성찰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이제부터 바르트가 이슬람을 언급한 문맥 하나하나를 선택의 교리와 관련하여 재해석해 보도록 하자.

in *Karl Barth and the Future of Evangelical Theology*, ed. Christian T. Collins Winn and John L. Drury (Eugene: Cascade, 2014), 206–227; Hanna Reichel, “Barth on the Church in Mission,” in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Karl Barth*, vol. 1, ed. George Hunsinger and Keith L. Johnson (Chichester: Wiley Blackwell, 2020), 327–339.

- 41 다음을 참고하라. Hans Urs von Balthasar, *Kleiner Diskurs über die Hölle – Apokatastasis*, 김관희 옮김, 『지옥 이야기』 (서울: 바오로딸, 2017), 66;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김택영 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길, 2010), 207–211.
- 4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교리가 어떻게 현대의 신학 혹은 선교적 교회 등에 통찰을 줄 수 있을지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김진혁, “환대와 선택: 현대의 신학을 위한 예정론의 재해석,” 『장신논단』 vol. 53, no. 1 (2021), 95–125.

2.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는 인류의 연대

바르트가 종교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정의한 『교회교의학』 I/2는 1938년도에 출간되었고, 이로부터 4년 후인 1942년도에 완성한 『교회교의학』 II/2에서 선택의 교리를 선보였다. 그런데 칼뱅의 이중예정론에서 바르트가 이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선택을 중심으로 예정론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은 최소한 1936년도 예정론 강의에서부터이다.⁴³ 그렇다면 예정론에 대한 수정주의적 재해석은 바르트가 당시 작업 중이던 『교회교의학』 I/2의 종교 비판에도 그 흔적을 남겼으리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 바르트가 『교회교의학』 I/2에서 종교를 다루는 방식을 분석하면, 선택의 교리와 유사하게 ‘인류의 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짓 종교와 참종교를 분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교의학』 I/2에서 장황하게 전개된 ‘불신앙으로서 종교’에 관한 바르트의 설명 중 이슬람은 다음 문장에서 딱 한 번 등장한다. “이슬람이 표현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불교 혹은 고대와 현대의 무신론 운동이 제시한 신에 관한 단일한 생각 혹은 부재하는 신의 이미지만큼이나 결함이 있다.”⁴⁴ 바르트는 인간이 계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신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적하면서, (흔히 계시종교로 분류되는) 이슬람마저 이러한 부정적 사례로 언급한다.⁴⁵

43 바르트의 예정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의 보편성에 대한 강조가 일어난 시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Matthias Gockel, *Barth and Schleiermacher on the Doctrine of Election: A Systematic-Theological Compari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59-164.

44 Barth, CD I/2, 302.

45 『교회교의학』의 다른 저술에서도 바르트는 이슬람의 신론이 추상적인 하나에 매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면서도 하나이심을 강조한다. 다음을 참고하라. Chestnutt, “Reformation and Islam,” 33-34.

물론 이 구절만 떼어놓으면 이슬람에 대한 도발적이고 무례한 공격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에게는 종교라는 심리적·문화적 기제를 활용해 거짓된 신 이미지를 스스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불안과 욕망을 달래려는 본성이 있다는 논리가 있다. 즉, 계시로부터 떠나있다면 그리스도인, 무슬림, 불교도, 무신론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신 없는 인간’으로서 연대를 맺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바르트의 종교 비판은 그리스도교가 타종교를 향해 던지는 비판도, “거의 모든 종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드러나는 진선미”⁴⁶에 대한 유럽중심주의 신학자의 시비 걸기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을 포함한 세계종교에 대해 그리스도교 교회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바르트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계시와 맺는 특별한 역사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기만에 빠진 최악의 불신앙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계시에 대한 증언을 담당할 교회는 참된 종교의 구체적 자리이기도 하다.⁴⁷ 누구나 우상을 만드는 죄인이지만 이러한 왜곡된 종교성을 가진 인간마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신다는 복음은 계시를 통해 알려진다. 인류가 죄인으로서 연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를 이룬다는 것을 아는 교회가 다른 종교에 대해 취할 태도는 관용과 인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교양 있는 현대인의 중용적 태도나 세계종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에서 나온 개방성과 차이가 있다. “종교와 종교들은 그리스도의 관대함으로 알려진 관용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인간과 그의 종교와 직접 화해하셨다는 지식으로부터 나온다.”⁴⁸ 실제 『교회교의

46 Barth, *CDI/2*, 300.

47 *Ibid.*, 298.

48 *Ibid.*, 299(강조는 필자의 것).

학』 I /2의 구조를 분석해 보더라도, 바르트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종교적 다원주의와는 차별화된 신학적 개념으로서 관용을 제시한 후에야, ‘불신앙으로서 종교’의 다양한 형태와 현상에 대한 분석을 이어간다. 하지만 여기서도 바르트가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는 작업은 철저하게 피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⁹

바르트가 그리스도교와 타종교를 유의미하게 구분하는 것은 ‘참된 종교’에 대해 말할 때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참된 종교이고 다른 종교는 거짓임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우리는 일반 이론이나 실천적 관점에서 종교에 접근할 때가 아니라 “의로워진 죄인에 대해 말하는 한에서만 참 종교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⁵⁰ 교회는 세상과 화해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공동체이기에, 교회는 계시를 통해 종교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다른 누구보다 먼저 순종해야 한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타종교에 대한 배타주의나 우월주의를 만들어냈던 교회의 습관마저 심판하고 해체한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교회는 계시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인류 모두가 참여할 것을 회개와 희망 속에서 기다리며 그 약속을 세상에서 증언한다. 이처럼 『교회교의학』 I /2에서 간략히 언급된 이슬람 신론에 대한 비판을 이기적 욕망의 렌즈를 통해 신의 이미지를 자기 식대로 그려낼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속성에 대한 폭로, 그리고 하나님과 인류 모두가 화해하기를 갈망하는 중에 빚어진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 인내라는 맥락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49 Ibid., 326.

50 Ibid., 325.

3.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슬람의 위치

인류와 화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관점에서 바르트의 종교 비판에 접근할 때, 우리는 다종교 사회 속에서 교회의 사명과 자세가 무엇일지를 더욱 뚜렷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바르트가 세계종교 일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슬람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이해에 특별한 통찰을 줄 수는 없을까? 이 문제에 대해 바르트가 직접 논하지는 않지만, 선택의 교리를 전개한 『교회교의학』Ⅱ/2를 선보이고 8년 뒤 출간한 『교회교의학』Ⅲ/2의 섭리론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바르트에 따르면, 섭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으로 형성된 ‘계약’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외적 근거이다.⁵¹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섭리론을 세계의 운행에 관한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관한 교리로 정의한다. 그 후 그는 다신교나 범신론 등에서 창조신과 세계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⁵² 그리고는 랍비 유대교와 이슬람이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주인이신 창조자이자 섭리자를 믿지만, 이들 종교가 상정하는 절대자와 세계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랍비 유대교는 1세기에 있었던 성전 파괴와 히브리 성서(구약 성서) 정경화 이후에 수백 년의 시간을 걸쳐 형성되었다. 7세기에 역사에 등장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공

51 Barth, *CD* Ⅲ/3, 4-7. 이러한 정의는 계약과 창조의 관계에 대한 바르트 특유의 이해에서 비롯한다. 계약은 창조의 ‘내적형식’이고, 창조는 계약의 ‘외적형식’이다. Barth, *CD* Ⅲ/1, 42-44.

52 Barth, *CD* Ⅲ/3, 26-27.

통 경전과 그 내용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그렇기에 랍비 유대교와 이슬람은 그리스도교와 유사한 신 이해를 공유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바르트가 보기에 랍비 유대교와 이슬람은 신구약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에, 신의 속성이나 활동에 대해 모호하게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슬람의 추상적인 유일신론에 대한 바르트의 계속된 비판의 연속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⁵³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르트는 회당 중심의 랍비 유대교를 “그리스도교 이후 유대교의 반(半)성서적 종교”(the semi-biblical religion of post-Christian Judaism)로, 이슬람은 “이러한 유대교의 이방화된 형태”(the paganised form of this religion)라고 부른다.⁵⁴ 즉, 바르트 신학에서 랍비 유대교와 이슬람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맺어진 계약의 역사 외부에 있는 유일신 종교라는 점에서 섭리 속에 함께 묶여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신구약 성서의 계약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한 바르트의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 성서의 정경화 이후에 등장한 이슬람의 운명을 ‘선택받지 못함’이라는 범주 아래서 살펴보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무엇보다도 교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역사를 계승하는 랍비 유대교를 이슬람과 함께 묶을 만한 근거가 바르트에게 충분히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바르트가 선택의 교리에서 로마서 9-11장을 주석하면서 이삭과 대조되는 이스마엘의 운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53 각주 45의 내용과 거기서 언급한 체스트넛 논문도 참고하라.

54 Ibid., 26-28(강조는 필자의 것).

4.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꾸란에서는 아브라함의 자녀 중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 하지만, 구약성서에서는 이삭이 선택된 아들이고, 신약성서는 이스마엘의 이름을 언급조차 않는다. 하지만, 바르트는 하나님의 선택 이면의 그림자 속에서 이스마엘의 위치를 발견한다. 로마서 9장 6-18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선택받지 못한 자로 (이스마엘 없이) 에서와 바로가 등장한다. 하지만 바르트는 이스마엘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병행 관계를 만든다. “이스마엘 옆에 있는 이삭, 에서 옆에 있는 야곱, 바로 옆에 있는 모세, 회당 옆에 있는 교회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약속과 신앙의 진정한 자녀들이다.”⁵⁵ 섭리론에서 바르트가 랍비 유대교와 이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함께 비판했다면, 여기서 그는 회당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선택 이면에 함께 위치시키고 있다.⁵⁶ 즉, 선택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회당과 이스마엘, 혹은 랍비 유대교와 이슬람은 같은 범주에 속한다.

로마서 9장 6-8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 이삭의 후계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포함된) 혈통으로가 아니라, (이스마엘은 배제된) 약속에 따른 결정이다. 하나님과 아

55 Barth, *CD II* /2, 228.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스마엘부터 오늘날 유대교 회당까지 하나님께서 의지하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인물의 계보가 내려온다. *Ibid.*, 287.

56 로마서 9-11장에 대한 바르트의 주석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라는 관점에서 오늘날 많이 주목받는 주제이다. 본 연구가 바르트의 주석 중에서도 이스마엘을 유대교 회당과 관련하는 방식은 체스트넛의 독창적 논문에 크게 빚졌음을 밝힌다. Chestnutt, “Barth and Islam,” 900-901.

브라함의 계약은 교회의 주님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 되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 자녀의 생명, 선재하는 교회”⁵⁷가 있다. 그렇다고 이스마엘을 포함하여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그들이 가진 결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호의에서 영원히 배제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모인 선택된 교회의 아버지이기도 하다”⁵⁸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자유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선택받지 못한 자인 바로를 통해서도 자신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신다(롬 9:17). 출애굽기에서는 목이 굳은 바로가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지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원래 자비는 [바로]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 아니라, 매우 분명하고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⁵⁹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와 달리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현실화하는데 둘의 역할이 모두 필요했다.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뿐만 아니라 바로를 통해 실행되었다.... [바로]는 모세 옆에 적절한 위치에서

57 Barth, *CD* II/2, 215.

58 *Ibid.*, 216(강조는 필자의 것).

59 *Ibid.*, 220. 바르트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칠십인역(LXX)의 그리스어를 직접 분석하며 주석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독특한 해석을 하게 되었다(강조는 필자의 것).

있다. 왜냐하면 그도 자신만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의를 증언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삭 옆에는 이스마엘, 야곱 옆에는 에서, 오늘날 교회 옆에는 불응하는 회당이 적절한 위치에서 있다.**⁶⁰

여기서도 바르트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마엘과 랍비 유대를 같은 범주 아래 놓고 있다.⁶¹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선택은 ‘모두를 위한’ 은혜의 선택임을 강조한다. 선택이라는 의도적 행위는 선택받지 못함이라는 반대 영역을 만들어 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라는 하나의 목적만이 있고, 그 목적은 역사 속에서 선택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통해 이중의 방식으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⁶²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무슬림을 향한 의지가 결코 다르지 않다.

이삭의 후손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하여(창 17:19), 이스마엘의 후손은 하나님의 호의에서 영원히 배제되었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선, 구약성서에서 이삭의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신다(창 17:18, 20).⁶³ 또한, 신약의 복음은 이삭만이 아니라

60 Ibid., 221(강조는 필자의 것).

61 바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임을 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에 신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Ibid., 236.

62 Ibid., 450.

63 선택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관한 바르트의 예민한 관찰을 참고하라. Ibid., 355-356.

이스마엘의 운명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도록 우리의 시야를 확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위에 떨어질 거절을 자기 아들이 담당하게 하셨기에, 이스마엘과 에서와 바로와 모든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은 결국에는 중지될 것이고 한계지어질 것이다.”⁶⁴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그리스도의 성부로부터 버림받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선택’이라는 이중 구조를 통해 보지 않는다면, 이스마엘로부터 유대교 회당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영원히 떨어진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⁶⁵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자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이다. 그는 선택된 자이고 그의 버림받음 속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신약성서의 주석에 따라 그러하다면, 적어도 우리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선택의 이야기들을 그들의 놀라운 이원성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과 그의 제사의 유형으로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의 추방과 신비로운 보호라는 매우 다른 유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유형뿐만 아니라 배제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이방

64 Ibid., 226(강조는 필자의 것). 다음도 참고하라. “이방인들의 부름 속에 이미 현재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들의 미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심지어 이스마엘과 에서의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심지어 바로의 하나님으로서 정당하게 만든다.” Ibid., 231(강조는 필자의 것).

65 심지어 바르트는 선택받지 못한 이들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유다의 사례를 통해 고민한다. 유다는 스승에 반대했지만, 스승은 배신한 제자를 위하셨다. 이처럼 선택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포함한 인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를 고려할 때, 복음에 역행했다는 이유로 유다의 운명에 대해 우리가 단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Ibid., 458-506.

민족이라는 매우 다른 유형 속에서 인식해야만 한다.⁶⁶

이스마엘의 운명, 더 나아가 무슬림을 포함한 모든 비그리스도 교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일의 빛 아래서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것은 영원한 배제가 아니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저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분이 되기로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결정을 취소하지 못한다.

IV. 나가는 말

지금껏 이슬람에 대한 바르트의 견해를 그의 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 재구성해 보았다. 바르트가 이슬람을 포함한 여러 세계종교에 대해 배타주의적 태도를 보였다는 단 순화된 이미지가 극복되기를 기대하며, 이 글은 먼저 이슬람과 관련된 오늘날 다양한 논의에서 바르트의 신학이 어떤 식으로 소개되고 수용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 후 바르트의 교의학적 저술에 담긴 이슬람에 대한 짧은 논평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그 맥락을 해석함으로써, 이슬람에 대한 바르트의 견해를 보다 균형 있게 제시하였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슬람에 대한 바르트의 ‘신학적’ 태도가 오늘날 상황에서 가지는 의미 두 가지를 거론하고자 한다.

우선, 이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종교 비판의 맥락에

66 Ibid., 366(강조는 필자의 것).

서 재검토할 수 있다. 바르트식으로 말하자면, 이슬람을 포함한 타종교와 만날 때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형성한 이론이 아니라 계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말은 다른 종교와 마주하고 대화하는 과정 중에 교회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진행해야 하는 것은 계시의 빛 아래서 종교로서 그리스도교 자신에 대한 심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역사적 종교로서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교 우월주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⁶⁷ 단지 교회는 회개와 희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와 인류 사이의 화해를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명에 있어서 특별할 뿐이다.

또한, 우리는 이스마엘에 대한 바르트의 흥미로운 해석을 통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관계에 대한 통찰도 얻을 수가 있다. 꾸란이 아닌 신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삼는 이상 그리스도인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바르트는 하나님의 선택 이면에서 이스마엘의 고유한 자리를 강조한다. 바르트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양쪽을 통해 다르게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각기 다른 역사적·문화적 기억을 가지고 발전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각자의 위치를 인정하며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 사명을 화해의 하나님이지자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수행한다. 교회는 무슬림을 환대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이유와 힘을 정치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

67 이 지점에서 각 종교에는 고유한 진선미가 있으며, 그 속에 있는 인간적인 가치를 '인간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바르트의 발언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Ibid., 300.

에서 하나님과 화해와 인류의 연대에서 찾는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르트 자신이 이슬람에 대해 지식이 부족해 구체성은 떨어지겠지만) 바르트의 신학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특별한 관점을 현대인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⁶⁸ 물론 세계종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종교 간의 대화나 선교 전략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바르트는 그리 매력적인 신학자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의 구체성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이슬람에 대해 개방적일 수 있는 신학적 자원을 찾거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여러 장벽에도 불구하고 두 종교의 관계를 깊은 연대 속에서 파악하거나,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을 포함한 모든 인류와 하나님의 화해를 선포하고 현실화하는 공동체로 교회의 존재와 사명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바르트에게서 이슬람을 바라보는 매우 그리스도론적이면서도 포용적인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8 종교 간 대화라는 맥락에서 볼 때 바르트 신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하여'라는 구체성에 뿌리박고 있다. Ensminger, *Karl Barth's Theology as a Resource for a Christian Theology of Religions*, 2-3.

■ 참고문헌

- 김진혁. “환대와 선택: 환대의 신학을 위한 예정론의 재해석.” 『장신논단』 vol. 53, no. 1 (2021): 95-125.
- 변창욱. “종교개혁자들의 이슬람.”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0, no. 1 (2017): 99-132.
- 신숙구. “이슬라모포비아: 요한복음에 나타난 포용의 신학.”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4, no. 2 (2021): 7-46.
- 안점식. “헨드릭 크래머(Hendrik Kraemer)의 종교신학과 선교신학에 대한 고찰.” 『신학정론』 23 (2005): 240-262.
- 조문상. “이슬람 선교를 위한 접촉점.”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3, no. 1 (2010): 149-166.
- von Balthasar, Hans Urs. *Kleiner Diskurs über die Hölle – Apokatastasis*. 김관희 옮김. 『지옥 이야기』. 서울: 바오로딸, 2017.
- Barth, Karl. *Die Kirchliche Dogmatik*, I-IV. Edited by Thomas F. Torrance and Geoffrey W. Bromiley. Translated by Geoffrey W. Bromiley et al. *Church Dogmatics*, I-IV. Edinburgh: T & T Clark, 1936-1977.
- _____. “Christengemeinde und Buergergemeinde.” Unknown Translator. “The Christian Community and the Civil Community.” In *Community, State and Church*. Edited by Will Herberg. Garden City: Anchor Books, 1960.
- _____. “Evangelische Theologie im 19. Jahrhundert.” Translated by Thomas Wieser. “Evangelical Theology in the 19th Century.” In *The Humanity of God*. Louisville: West-

- minster John Knox Press, 1960.
- _____. “Die Menschlichkeit Gottes.” Translated by John Newton Thomas. “The Humanity of God.” In *The Humanity of Go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 Busch, Eberhard. *Die grosse Leidenschaft*. 박성규 옮김. 『위대한 열정』.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_____. “Indissoluble Unity: Barth’s Position on the Jews during the Hitler Era.” In *For the Sake of the Word: Karl Barth and the Future of Ecclesial Theology*. Edited by George Hunsinger. Grand Rapids, Mich. and Cambridge, U.K.: Wm. B. Eerdmans, 2004.
- Chestnutt, Glenn “Barth and Islam.” In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Karl Barth*. Vol. 2. Edited by George Hunsinger and Keith L. Johnson. Chichester: Wiley Blackwell, 2020.
- _____. “The Reformation and Islam: Karl Barth in Conversation with Tariq Ramadan and Ali Gomaa.” *Journal of the Council on Religion* 1 (2020): 31–46.
- Chung, Paul S. “Karl Barth’s Theology of Reconciliation in Dialogue with a Theology of Religions.” *Missional Studies* 25 (2008): 211–228.
- Clooney, Francis. *Hindu God, Christian God: How Reason Helps Break down the Boundaries between Relig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Foreword.” In *Karl Barth and Comparative Theology*.

- Edited by Martha L. Moore-Keish and Christian T. Collins Winn. New York: Fordham University, 2019.
- Ensminger, Sven. *Karl Barth's Theology as a Resource for a Christian Theology of Religions*. Edinburgh: T & T Clark, 2016.
- Gockel, Matthias. *Barth and Schleiermacher on the Doctrine of Election: A Systematic-Theological Compari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Green, Garrett. "Challenging the Religious Studies Canon: Karl Barth's Theory of Religion." *Journal of Religion* 75 (1995): 473-486.
- Greggs, Tom. "Bringing Barth's Critique of Religion to the Inter-faith Table." *Journal of Religion* 88 (2008): 75-94.
- Hart, Trevor. *Regarding Karl Barth: Toward a Reading of His Theology*. Eugene: Wipf & Stock, 1999.
- Kärkkäinen, Veli-Matti.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Religions : Biblical, Historical & Contemporary Perspectives*. Downers Grove: IVP Academics, 2003.
- _____. *Trinity and Religious Pluralism: The Doctrine of the Trinity in Christian Theology of Relig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7.
- Kim, Ahyoung. "Quranic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Faiths."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 no. 1 (2008): 53-71.
- Knitter, Paul. *No Other Name?: A Critical Survey of Christian*

- Attitudes toward the World Religion*. 변선환 옮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Kraemer, Hendrik. *The Christian Message in a Non-Christian World*. 최정만 옮김. 『기독교 선교와 타종교: 종교다원주의 신학에 대한 비교종교학적 비판』. 서울: CLC, 1993.
- _____. *Religion and the Christian Faith*. Cambridge: James Clarke Co., Ltd, 1956.
- McCormack, Bruce. “Grace and Being: The Role of God’s Gracious Election in Karl Barth’s Theological Ontology.” In *Cambridge Companion to Karl Barth*, Edited by John Webs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_____. “Karl Barth on the Relation of Islam to Christianity [unpublished lecture manuscript].”
- McDermott, Gerald. *Can Evangelicals Learn from World Religions*. 한화룡 옮김. 『기독교는 타종교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종교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양』. 서울: IVP, 2018.
- Metzger, Paul Louis. *The Word of Christ and the World of Culture : Sacred and Secular through the Theology of Karl Barth*. Grand Rapids: Eerdmans, 2003.
- Di Noia, J. Augustine. “Religion and the Religion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Karl Barth*, Edited by John Webst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Pui-lan, Kwok, Don H. Compier, and Joerg Rieger, eds. *Empire and the Christian Tradi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Ralston, Joshua. “Analogies across Faith: Barth and Ghazali on Speaking after Revelation.” In *Karl Barth and Comparative Theology*. Edited by Martha L. Moore-Keish and Christian T. Collins Winn. New York: Fordham University, 2019.

Reichel, Hanna. “Barth on the Church in Mission.” In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Karl Barth*, Vol. 1. Edited by George Hunsinger and Keith L. Johnson. Chichester: Wiley Blackwell, 2020.

Roberts, Kyle A. “The Church as ‘Witness’ : Karl Barth and the Missional Church.” In *Karl Barth and the Future of Evangelical Theology*. Edited by Christian T. Collins Winn and John L. Drury. Eugene: Cascade, 2014.

Sonderregger, Katherine. *That Jesus Christ Was Born a Jew: Karl Barth’s “Doctrine of Israel.”*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2.

Specker, Tobias. “Karl Barth’s Critique of ‘Islam’ as a Stimulus for Christian-Muslim Dialogue [Unpublished manuscript].”

Strange, Daniel. *Their Rock Is Not Like Our Rock*. Grand Rapids: Zondervan, 2014.

Volf, Miroslav. *Allah: A Christian Response*. 백지윤 옮김. 『알라』. 서울: IVP, 2016.

Weber, Max.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김덕영 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길, 2010.

Pashman, Manya Brachear. “Wheaton College Seeks to Fire Christian Professor over View of Islam (January 6, 2016).” *Chicago Tribune*. <https://www.chicagotribune.com/news/breaking/ct-wheaton-college-professor-fired-20160105-story.html> (accessed January 20, 2022).

■ ABSTRACT

God's Plan for Ishmael
: Re-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ity and Islam from the Perspective
of Karl Barth's Doctrine of Election

Jin Hyok Kim

Karl Barth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rotestant theologians in the 20th century. He strongly emphasizes the difference between God's revelation and human religiosity, defining religion as human disobedience to the self-revealing God. This radical idea has been inadequately used to justify Christians' exclusivist attitude toward other religions. Resisting this rather simplified reading of Barth,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ity and Islam from the perspective of his tantalizing view of election, a doctrine celebrated by many Barth scholars as his most creative and crucial theological achievement. He charges Islam's view of God in the sense that its abstract understanding of divine transcendence cannot fully explain God's gracious self-decision to be *Deus pro nobis* (God for us). In addition, his radical claim that God's eternal election and rejection take place in Jesus Christ makes room for re-thinking the place

of Ishmael and his descendent within God's providence.

Keywords: Karl Barth, Islam, Revelation, Religion, God's Election